

인터넷 독자의 인식적 처리에 관한 사례 기반 고찰

— 두 대학생 독자의 정보 탐색, 평가, 종합 양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채윤 한양대학교 러닝사이언스학과 박사수료(제1저자)

조병영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및 러닝사이언스학과 교수(교신저자)

- * 이 논문은 '이채윤(2022), 『인터넷 읽기에서의 인식론적 처리 과정 연구: 대학생 독자의 사고기술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서 수집한 자료를 새롭게 분석해 집필한 것이다.

- I. 서론
- II. 인터넷 읽기와 인식적 처리
- III. 인터넷 독자의 인식적 처리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 IV. 인식적 처리에 따른 인터넷 읽기 양상 비교
- V. 결론

I. 서론

인터넷 환경에서 독자는 인지 전략의 효과적인 사용을 넘어서 자신이 어떻게 읽고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텍스트(독자가 접근, 선택, 활용한)와 맥락(그러한 텍스트를 접근, 선택, 활용하는 텍스트 환경)에 견주어 그 가치와 의미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인터넷에서 읽은 개별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정보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능동적인 인지 처리를 통해서 그러한 판단에 이를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이 시험 문제의 정답처럼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독자의 역할이 그 정답을 찾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여기기보다 지식이 자신의 읽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고 믿는다면 독자는 그러한 방식으로 좋은 정보를 찾아 연결, 해석, 판단하는 과정에 몰입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되고 공유된 정보와 텍스트가 산재해 있는 인터넷 읽기 환경에서는 독자가 가진 지식과 읽에 대한 관점이 이러한 정보와 텍스트를 탐색, 평가, 종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인터넷 읽기를 일련의 구성적 탐구 과정으로 볼 때, 읽기 중 독자가 수행하는 선택과 판단은 인식론적 신념(epistemic beliefs)을 토대로 작동할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인식론적 신념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지식과 얹에 관한 개인의 생각이자 태도를 말한다(Hofer, 2004).¹⁾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은 인터넷 읽기에서 정보의 출처를 조사하고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해당 정보가 어떻게 자신의 지식구성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주로 관여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인터넷 독자들의 인식론적 신념이 잠재적으로 그들의 읽기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이 읽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행동 혹은 전략에 초점을 둔다. 인식론적 신념이 반영되었다고 가정되는 일련의 읽기 행동을 ‘인식적 처리(epistemic processing)’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두 명의 대학생 독자의 인터넷 읽기를 비교하면서 ‘관찰가능한(observable)’ 인식적 처리 과정을 분석,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인식적 처리란 글 읽기 과정에서 정보를 검증하고 평가하거나 지식구성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때 수행되는 인지적, 메타인지적 읽기 행위로(Cho, Woodward, & Li, 2017), 읽기 중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이 반영되는 양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인식적 처리의 차이는 일정 정도 인식론적 신념의 차이를 반영할 것이고, 인식적 처리의 차이가 글 읽기 과정과 결과

1) 국내 연구에서 epistemological beliefs와 epistemic beliefs는 모두 ‘인식론적 신념’으로 번역되며, 그 개념적 구분도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사한 의미를 지닌 두 용어가 국외에서 논의되는 맥락을 살펴보면, 이 역시 엄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전자는 여러 영역에 걸친 지식과 얹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을 뜻하는 용어로 철학적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두고, 후자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특정한 영역 또는 맥락에서 학습자나 독자의 관점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이 연구는 인터넷 읽기라는 맥락에서 독자의 지식과 얹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기에 ‘epistemic beliefs’의 용어를 채택하지만,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데 있어 epistemological beliefs와 epistemic beliefs의 의미를 구분해 논하지 않고, 용어 역시 ‘인식론적 신념’으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

의 전반에서 정보와 텍스트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앎의 과정의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두 명의 대학생 독자는 인식적 처리의 측면에서 상반된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인터넷에서 글을 읽는 동안 산출한 사고 기술 자료를 중심으로 그 다름의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이 인식적 처리로서 인터넷 읽기 전반(정보 탐색, 평가, 종합)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기술하고, 그것이 독자의 지식구성 과정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과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독자 역량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인터넷 읽기와 인식적 처리

1. 인식론적 신념과 읽기

인식론적 신념이란 한 개인이 ‘지식의 본질(nature of knowledge)’과 ‘앎의 과정(process of knowing)’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관한 믿음이자 태도를 말한다(Hofer & Pintrich, 1997). 그간 교육심리학 연구에서 인식론적 신념은 학자에 따라 그 개념과 하위 요인을 정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식론적 신념은 Hofer & Pintrich(1997)에서 정의한 ‘지식의 본질’과 ‘앎의 과정’이라는 두 영역으로 설명되었다(Hofer, 2004; 양미경, 2006). Hofer & Pintrich(1997)의 설명을 중심으로 할 때, 인식론적 신념의 영역은 <표 1>과 같다.

〈표 1〉 인식론적 신념의 영역(Hofer & Pintrich, 1997 재구성)

지식의 본질	지식의 확실성	지식을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보는지, 잠정적이며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에 관한 신념
	지식의 단순성	지식의 구조를 개별 사실들의 집합으로 보는지, 상호 관련 있는 개념 간의 복잡한 조직이라고 보는지에 관한 신념
앎의 과정	앎의 원천	지식이 외부의 권위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는지, 개인이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지에 관한 신념
	앎의 정당화 방식	어떤 지식이 정당한가를 판단해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정해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지에 관한 신념

또한 이들은 각 영역이 수준이나 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개인의 인식론적 신념이 낮은 수준(소박한 관점)에서 높은 수준(정교한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낮은 수준의 인식론적 신념은 개인이 지식을 확실하고 단순한 것으로 여기고, 외부에서 구성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앎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을 뜻한다. 이와 달리, 높은 수준의 인식론적 신념은 개인이 지식을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복잡다단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의 이해와 판단에 따라 지식을 구성한다고 인식하는 것에 해당한다. 전자는 지식의 구성에 대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견해를, 후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견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이소라, 2017 ㄱ: 189-190).

한편, 인식론적 신념이 지식과 앎에 대한 관점이라는 점에서, 인식론적 신념은 하나의 독자 변인으로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인 읽기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식론적 신념을 글 읽기 상황에 대입해보면, 낮은 인식론적 신념을 지닌 독자는 텍스트는 객관적인 진실을 나타낸다고 보고, 독자는 사실이나 주장 등을 포함한 글의 정보에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소박한 관점을, 높은 인식론적 신념을 지닌 독자는 텍스트는 정확하지 않거나 그릇될 수 있고 저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가

능성이 있으며, 독자는 텍스트의 주장과 근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정교한 관점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Afflerbach, 2022).

실제로 Schommer(1990)는 지식의 확실성에 대한 신념이 강한 학습자일수록 주어진 지문을 자신의 입장에 따라 왜곡해 이해하거나 습득한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인식론적 신념의 수준이 낮은 학습자일수록 주어진 지문을 지나치게 단순화 혹은 일반화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윤초희(2012)는 지식을 객관적인 것으로 보는 학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지식에 비해 권위자나 전문가에 의해 전달되는 지식을 더욱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학 분야에서 인식론적 신념은 학습자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론적, 실증적으로 탐구되고 있는 반면, 국내 독서 연구에서 인식론적 신념은 다른 독자 변인에 비해 그 논의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 그간 국내 독서 연구에서는 검사 도구를 활용해 인식론적 신념을 측정해 읽기 과정 또는 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했다(이소라, 2017ㄱ, 2017ㄴ, 2018; 장성민, 2022ㄱ, 2022ㄴ).

이소라(2017ㄴ)는 연구 대상자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로 설정해 다중관점 읽기와 인식론적 신념의 학교급별 발달 양상을 확인하고, 세련된(정교한) 신념은 정적으로, 소박한 신념은 부적으로 다중관점 읽기를 예측함을 밝혔다. 장성민(2022ㄱ)은 고등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인식론적 신념을 측정해 상위 수준 집단과 하위 수준 집단의 다문서 선택 및 사용의 차이를 밝혔는데, 인식론적 신념 수준이 낮은 참여자가 오히려 더 많은 문서를 선택하고 더 많은 수의 정보 단위를 자신의 글에 가져다 사용했으며, 내용 관련성과 저자 전문성이 모두 높은 문서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선행 연구의 결과는 후속 연구를 촉진하며, 인식론적 신념과 읽기 과정 및 결과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탐구할 필요성을 제고한다.

한편 국외 독서 연구 분야에서 인식론적 신념은 특히 인터넷 읽기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 변인이면서 인터넷 읽기 환경에서 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으로서 활발히 탐구되고 있다(Barzilai & Zoher, 2012; Bråten, Strømsø, & Ferguson, 2016; Cho et al., 2017; Ferguson, Bråten, & Strømsø, 2012; Hofer, 2004; Mason, Boldrin, & Ariasi, 2010a, 2010b; Woodward & Cho, 2020). 장성민(2022ㄱ, 2022ㄴ)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디지털 환경을 구현해 제시문을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지문에 관한 추가 검색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 개방된 인터넷 읽기 환경에서의 읽기 과정 및 결과와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 간의 관계를 질적으로 탐구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 인터넷 읽기에서 작동하는 인식론적 신념

Hartley & Bendixen(2001)은 인터넷 시대에 주목해야 할 학습자 특성으로 독자의 자기 조절 능력과 인식론적 신념을 꼽은 바 있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인식론적 신념과 텍스트 이해 및 학업 성취 간의 관련성이 컴퓨터 기반의 학습 환경(computer-based learning environments)과 개방적 환경(open-ended environments)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정보 평가와 선택, 지식구성 과정의 자율성과 책임이 극대화되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고 비선형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타당한 지식이나 관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읽은 정보의 출처나 근거에 대한 판단과 자신의 지식구성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인데, 이때 합리적 의심을 촉발하는 기제가 인식론적 신념으로 설명되는 지식의 구성성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이소라, 2017ㄱ: 184).

Jacobson & Spiro(1995)에 따르면, 실제로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학생들이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의 비선형적이고 다차원적인 환경에서 읽

기와 학습을 어려워한다. 또한 인터넷상의 다양한 의미구성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텍스트에 포함된 이미지나 도표, 하이퍼링크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정교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독자는 인터넷에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이나 주제에 대해 탐구하는 개방형 과제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이며(Tu, Shih, & Tsai, 2008),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선택하는 것 이외에도 인터넷 자료의 출처를 더 자주 조사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Barzilai & Zoher, 2012; Chiu, Liang, & Tsai, 2013; Cho et al., 2017; Mason et al., 2010a, 2010b; Woodward & Cho, 2020; Yilmaz & Çakmak, 2016). 또한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연결하는 통합 전략을 활발하게 사용하며(Barzilai & Zoher, 2012), 자신의 입장과 다른 텍스트를 읽었을 때 더 활발한 인지 과정을 통한 개념적 변화(conceptual change)를 경험하기도 한다(Kendeou, Muis, & Fulton, 2011).

정리하면, 인식론적 신념은 인터넷 읽기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것부터 정보의 출처를 조사하고, 정보 간의 연결을 통한 지식구성 과정 전반에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을 토대로 한 선택과 판단의 문제는 사이트 선정, 검색어 입력과 수정, 자료 선별, 자료 판단, 추가 자료 필요성 인식, 자료 재탐색 등 구체적인 읽기 수행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3. 인터넷 읽기에서의 인식적 처리

인식적 처리란, 읽기에서 인식론적 신념의 작동 양상을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이 인지적, 메타인지적 읽기 행위로 발현되는 양상을 지칭한다(Cho et al., 2017). 인식적 처리가 일반적인 인지적, 메타인지적 읽기 전략 활용과 다른 점은, 독자가 지식을 얻거나 구성하기 위해 정보나 자신의 관점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특정 순간에 나타나는 읽기 행위라

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1) 독자가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황, 2) 자신의 지식구성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상황에 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자의 상황에서 독자는 개별 정보가 자신의 지식구성에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는 단순히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성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인지적 처리와는 구별된다. 후자의 상황에서 독자는 자신이 구성한 지식이 충분하고 타당한지를 점검하는데, 이 역시 어휘 지식이나 주제 지식의 부족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다시 읽거나 넘어가는 등의 메타인지적 처리와는 다르다. 따라서 읽기 과정에서 관찰되는 인식적 처리는 독자가 지식과 얹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로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질문하고 평가하는 맥락, 읽기를 통해 구성된 자신의 지식이나 관점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o et al.(2017)은 이처럼 인식적 처리를 독자가 자신의 인식론적 신념을 기반으로 해 수행하는 읽기 행위로 정의하고, 대학생 독자의 사고기술 자료를 분석해 이를 ‘인식적 판단(epistemic judgement)’, ‘인식적 점검(epistemic monitoring)’, ‘인식적 조정(epistemic regulation)’으로 구분했다. 인식적 판단, 점검, 조정은 각각 낮은 수준의 처리와 높은 수준의 처리로 그 정도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개념과 양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인터넷 읽기에서의 인식적 처리(Cho et al., 2017)

	의미	읽기 행동으로 표출되는 양상
인식적 판단	인식론적 신념에 따라 인터넷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됨.	❶ 인터넷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따져보지 않음. ❷ 자료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요소들(도메인, 작성자 등)을 확인함. ❸ 자료를 종합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함.
인식적 점검	인터넷 자료에 대한 인식적 판단과 얹의 과정을 인식하고 점검하는 것과 관련됨.	❶ 지식구성 과정의 방향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음. ❷ 지식구성 과정이 응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함.

인식적 조정	인식론적 신념에 따라 인터넷 읽기 과정 전반에 대해 인지적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과 관련됨.	❶ 정보 평가 및 지식구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인식하지 못함. ❷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인식하고 자료를 탐색함.
-----------	---	---

인식적 처리가 자기보고식 설문 결과처럼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인식론적 신념이 실제 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시간으로 포착함으로써 인식론적 신념의 맥락적 작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인식적 처리라는 개념이 가지는 효용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읽기 중 독자가 수행한 사고기술 자료를 분석해 독자의 인식적 처리를 조사하고자 했다. 특히 정보 탐색, 평가, 종합의 과정에서 인식적 처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지식구성의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달리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피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III. 인터넷 독자의 인식적 처리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대학생 인터넷 독자

이 연구는 정보 탐색, 평가, 종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식적 처리를 확인하고, 인식적 처리의 차이가 지식구성의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달리하는지 탐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인식론적 신념의 수준이 다르고, 읽기 결과의 차이가 두드러진 두 명의 독자를 선별해 인터넷 읽기 양상을 비교하고자 했다.

먼저, 인식적 처리는 자료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구성을 가장 높은 층위의 사고 과정으로 두는 개념이며, 연구 참여자가 읽기 과제를 수행하며 사고구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읽기 능력을 갖춘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에 참여자의 범위를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국어교육과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인터넷 읽기 선행 경험, 인터넷 읽기 능력, 인터넷 기반 인식론적 신념’을 조사했다. 사전 검사 도구와 문항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사전 검사 도구 및 내용

사전 검사 항목	조사 도구	문항 내용
인터넷 읽기 선행 경험	• 연구자가 문항을 구성해 사용함(9문항).	• 인터넷 이용 시간 • 인터넷 활용 양상
인터넷 읽기 능력	• Cho & Afflerbach(2015)이 사용한 설문지를 번역해 사용함(16문항). ²⁾	• 자료의 탐색 및 선택 • 자료 이해 및 자료 간의 상호 연결 • 자료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읽기 과정 점검 및 조정
인터넷 기반 인식론적 신념	• Bråten, Strømsø, & Samuelstuen (2005)이 개발한 인터넷 인식론적 신념 검사지(ISEQ)를 번역해 사용함(36문항). ³⁾	• 인터넷 기반 지식의 확실성 • 인터넷 기반 지식의 단순성 • 인터넷에서의 앎의 원천 • 인터넷에서의 앎의 정당화 방식

사전 검사 중 인터넷 읽기 선행 경험과 인터넷 읽기 능력 조사는 연구 참여자가 학습을 위한 인터넷 읽기에 익숙한지, 일정 수준 이상의 인터넷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했다. 사전 검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11명이었으나, 한 명의 참여자가 학습 시 인터넷을 사용하기보다는 종이책을 주로 활용한다고 답해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학생을 제외

2) 기존 설문지와 같이 10점 척도를 활용했고, 결과값은 하위 항목 합산의 평균값으로 계산했다(1~40점). 해당 점수는 높을수록 인터넷 읽기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기존 설문지와 같이 10점 척도를 활용했고, 결과값은 하위 항목 합산의 평균값으로 계산했다(1~90점). 해당 점수는 낮을수록 인식론적 신념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10명의 참여자들의 인터넷 읽기 능력 점수는 평균 33.13점(최저 25.5점, 최고 40점)으로, 모두 보통 수준 이상의 인터넷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인터넷 기반 인식론적 신념 점수를 확인했다. 검사 도구 설계에 따라, 점수가 낮을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것으로 해석했다. 일차적 조건에 충족한 10명의 인터넷 기반 인식론적 신념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인터넷 기반 인식론적 신념 검사 결과

집단 구분	인터넷 기반 인식론적 신념 점수	빈도(명)	누적 퍼센트
상 수준	34.50	1	10
	41.00	1	20
	43.75(독자 B)	1	30
중 수준	44.00	1	40
	45.75	1	50
	47.00	2	70
하 수준	49.25	1	80
	52.25(독자 A)	1	90
	53.50	1	100
전체(명)		10	

이상의 10명의 독자를 상위 30%, 하위 30%를 기준으로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고, 인터넷 읽기 과정 및 사고기술 자료 수집에 동의한 참여자 가운데,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독자를 한 명씩 선정하고자 했다. 다만 인식론적 신념 점수가 온전히 인식론적 신념 수준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읽기 결과로 작성한 활동지를 참고해 관점 구성 결과의 차이가

큰 두 명의 독자 A와 B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2. 인터넷 읽기 과제 설계

읽기 과제는 읽기 전 활동지 작성, 인터넷 읽기 수행, 읽은 후 활동지 작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지식 수준과 관심사를 고려해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읽기 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읽기 과제의 주제로 선정했다.

먼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 이유를 작성하게 한 후,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읽기를 하도록 안내했다. 연구 참여자는 인터넷 읽기를 하면서 사고구술을 수행했다. 사고구술에 관한 안내와 연습은 과제 시작 전에 이루어졌으며, 읽기 중 독자가 사고구술을 하지 않는 경우 연구자가 적절히 개입해 발화를 도왔다. 약 40분간의 인터넷 읽기가 마무리된 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작성하도록 했다.

연구자는 읽기 전, 중, 후 참여자의 과제 수행 과정을 모두 직접 관찰했다. 읽기 전, 후 과제는 종이로 된 활동지를 제공해 약 15분간 작성하도록 했으며, 인터넷 읽기 과정은 QuickTime Player 프로그램을 사용해 인터넷 읽기 중 참여자의 사고구술 음성과 화면상의 움직임은 기록했다.

읽기 과제가 모두 끝난 뒤에는 사후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전에 준비한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토대로 참여자의 읽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보충했다. 읽기 과정 중 사고구술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참여자의 생각이나 의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완했다. 인터뷰 자료는 직접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사고구술 자료를 해석하는 데에 참고했다.

3. 인식적 처리의 관찰과 분석

먼저 사고구술 자료를 전사한 뒤, 독자의 발화를 의미 단위로 나누었다. 그리고 화면 녹화 영상을 참고해 사이트 접속, 게시글 선택, 스크롤 움직이기 등의 행위를 추가적으로 기술했다. 다음으로 인터넷 읽기 기능과 전략, 인식적 처리 과정에 관해 순차적으로 코딩했다.⁴⁾

인터넷 읽기가 텍스트를 발견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순환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Leu, Kinzer, Coiro, Castek, & Henry, 2013), 읽기 전반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자 인터넷 읽기 기능과 전략을 먼저 코딩했다. 코딩 기준으로는 Leu et al.(2013)에서 설명한 ‘정보 탐색하기(locating information), 정보 평가하기(evaluating information), 정보 종합하기(synthesizing information)’를 활용했다.⁵⁾ ‘정보 탐색하기’는 검색 엔진을 선정하고 적합한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를 살펴 관련성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세부 코딩 기준으로는 고등학생의 디지털 탐색 과정을 ‘정보 접근, 정보 검색, 정보 조망, 정보 선택 및 배제’로 분석한 오은하(2023)의 연구를 참고했다.

‘정보 평가하기’는 정보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내용의 관련성과 정확성, 저자의 전문성이나 의도, 형식과 게시 일자 등을 두루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정보 및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뜻하는 ‘내용 확인하기’(편지윤·서혁, 2020: 222)도 정보 평가를 위

4) 코딩이란 연구 문제에 답하는 데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이터 조각 옆에 주석(연구자의 생각이나 분석 결과)을 다는 과정을 말한다(Merriam, 2009).

5) Leu et al.(2013)은 온라인 읽기에서 독자는 ‘문제 식별, 정보 탐색, 정보 평가, 정보 종합, 정보 소통’의 읽기 기능 및 전략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이 중 ‘정보 탐색, 정보 평가, 정보 종합’을 기준으로 삼아 코딩했다. 왜냐하면 ‘문제 식별’은 읽기 과제와 관련된 질문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는 ‘검색 계획’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고, ‘정보 소통’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 자신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는 읽기 후 작성한 활동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질문 식별’과 ‘정보 소통’은 사고구술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 별도의 코딩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한 읽기 수행이라고 보고 코딩 범주에 추가해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정보 종합하기’는 다양한 자료를 상호 연결하고, 자료에 내재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함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거나 관점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 종합에 대해서는 인식적 처리의 개념과 읽기 과제의 특성에 기반해 독자가 관점을 구성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코딩했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고구술 분석을 통해 도출된 코딩 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인터넷 읽기 기능 및 전략 코딩 기준

대범주	소범주
정보 탐색	• 검색 계획 • 검색 엔진 선정 • 검색어 입력 • 검색 결과 확인 • 자료 선택 또는 배제
정보 평가	• 자료 내용 확인 • 저자·게시자·자료 내 발화자 확인 또는 평가 • 게시 일자 확인 또는 평가 • 사이트 확인 또는 평가 • 자료의 출처 확인 및 평가 • 자료의 관련성 분석 및 평가 • 자료의 타당성 분석 및 평가 • 자료의 신뢰성 분석 및 평가
정보 종합	• 자신의 관점 확인 • 관점 수정 및 조정 • 관점 구성

인터넷 읽기 기능 및 전략을 코딩한 후에는 인식적 처리에 관해 코딩했다. 인식적 처리가 일반적인 읽기 전략과 다른 점은 그 목적이 독자의 지식 구성을 위한 평가와 판단, 점검과 조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이 연구의 개념적 기반인 Cho et al.(2017)의 ‘인식적 판단, 인식적 점검, 인식적 조정’을 기준으로 삼아 코딩했다. 자료를 분석해 도출한 인식적 처리 코딩 기

준은 <표 6>과 같다.

<표 6> 인식적 처리 코딩 기준

대법주	중법주	소법주	설명
인식적 판단	무비판적 자료 선택	근거 없는 자료 선택	검색 결과를 보고 자료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 없이 해당 자료를 선택 또는 선택하지 않음.
	자료에 대한 표면적 판단	자료의 표면적 정보 확인	자료를 수용할지, 배제할지 결정하는 데에 있어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사이트 제목, 게시자, 게시 날짜 등)를 확인함.
		자료의 표면적 정보 분석	표면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 그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수행함.
	자료에 대한 비판적 판단	근거의 타당성 분석	자료가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을 분석함.
		자료의 내용과 배경지식 또는 선행 경험 간의 비교·분석	자료가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내용과 자신의 배경지식 및 선행 경험 간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확인하고 분석함.
		자료 간의 관점 비교·분석	자료 간의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비교, 분석함.
인식적 점검	경로구축과정 점검	읽기 방향 상실	읽기 과정의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검색어 입력, 사이트 선정, 자료 선택 등을 망설임.
		읽기 방향 관리	구체적이고 적합한 방향성을 설정해 읽기를 수행함.
	지식구성과정 점검	수동적 정보 수용	읽은 자료를 있는 그대로 수용함.
		적극적 의미구성	읽은 자료를 이해, 분석, 평가해 수용할지, 배제할지를 결정함.
인식적 조정	정보 부족 인식		의미구성이나 관점 구성에 있어 필요한 정보가 있음을 인식함.
	추가 정보 탐색		추가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한 뒤 그 정보를 탐색해 보완함.

IV. 인식적 처리에 따른 인터넷 읽기 양상 비교

이 장에서는 연구 결과로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읽기 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주제로 인터넷 읽기를 수행한 독자 A와 B의 인식적 처리를 비교한다. 실제 읽기 과정에서 두 독자의 인식적 판단, 점검, 조정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탐색, 평가, 종합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장면을 중심으로 비교해 기술하고자 한다.⁶⁾

1. 정보 탐색 양상 비교

인터넷 읽기 환경의 특성상 독자의 정보 탐색은 독자가 마주하는 정보 자원의 양과 질을 달리하며, 효율적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읽기 속도나 질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최숙기, 2017: 450). 또한 탐색 단계에서 정보에 대한 빠른 접근과 판단은 다양한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Leu, Forzani, Burlingame, Kulikowich, Sedransk, & Coiro et al., 2013: 224). 이 절에서는 인식적 처리의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탐색 과정의 차이를 살펴본다.

1) 검색 계획의 근거 차이

독자 A와 B는 읽은 자료에 대한 인식적 판단과 점검의 차이로 인해 검색 계획의 목적성 측면에서 지식구성을 위한 방향 설정의 근거 유무에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은 두 독자가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색 계획을 세우는

6) 물론 인터넷 읽기 과정은 연속적이고 유기적이기에 ‘정보 탐색, 정보 평가, 정보 종합’으로 명확히 나누어지지 않는다. 후술되는 독자의 인터넷 읽기 과정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각각의 국면에 초점을 두되, 앞뒤 맥락을 함께 설명해 연속적인 과정인 인터넷 읽기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했다.

장면을 비교한 것이다.⁷⁾

■ 독자 A: [내용확인] “읽기 능력이랑 뇌의 능력이랑 관계가 있구나. 보고 느끼는 경험이 부족한 거구나?” → [검색계획] “아동 말고 성인에 대한 걸 보고 싶어. 좀 더 다양한 자료, 전문적이고 연구 같은 걸 찾고 싶은데” → [검색] 구글 학술검색 ‘스마트폰 사용 읽기능력’ → [자료선택] 논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가 독서 실태 및 자기조절읽기에 미치는 영향’

■ 독자 B: [내용확인] “읽기 능력이랑 문해력은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연결 지어서 생각해도 되나 조금 고민이 돼.” → [검색계획] “이제 정확히 문해력이 뭔지 찾아보려고 했어요.” → [검색] 네이버 ‘문해력’ → [자료선택] 국어사전 ‘문해력 정의’

독자 A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식적 판단과 점검 없이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한다. 그 후 읽은 내용과 상관없는 새로운 자료를 찾기 위한 검색 계획을 세운다. 반면 독자 B는 인식적 점검을 통해 ‘읽기 능력과 문해력을 같은 것으로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생성한다. 그리고 인식적 조정을 통해 추가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검색 계획을 설정한다.

독자 A도 검색 계획을 세우지만 이는 인식적 처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이어지는 검색 과정에서도 그 목적성이 모호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자 A는 ‘성인에 관한 전문적 자료’를 찾고자 하는 검색 계획을 세웠음에도 초등학생에 대해 연구한 학술 논문을 선택한다. 검색 계획으로서 설정한 방향성과 완전히 부합하는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독자 B는 자료를 읽고 인식적 점검과 조정을 수행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인식했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서 ‘문해력’의 의미를 확인해 자신

7) []에는 화면 녹화 영상을 통해 확인한 독자의 읽기 행위를, ‘ ’에는 검색어 또는 자료 제목을, “ ”에는 사고구술 발화를 기재했다.

의 관점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한다.

2) 검색-검색 결과 확인의 유기성 차이

검색 엔진 선정, 검색어 입력, 검색 결과 확인에 있어서도 독자 A, B의 인식적 처리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두 독자의 검색 과정 일부이다.

■ 독자 A: [검색엔진선정] RISS “그동안 써봤을 때 자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 [검색] ‘스마트폰 읽기 능력’ → [검색결과확인] “스마트폰이라고 치니까 많이 안 나오네요.” → [검색] ‘디지털 읽기’ → [검색결과확인] “관련된 연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 [검색] ‘스마트폰’ → [검색결과확인] → [검색] ‘스마트폰 독서’ → [검색결과확인] → [검색엔진선정] 구글 “찾는 자료가 없어서…”

■ 독자 B: [검색엔진선정] 구글 “해외에서 뭐라고 하는지 찾아야겠어요. 네이버는 국내 포털이라 어려울 것 같아서” → [검색] ‘smartphone users digital literacy’ → [검색결과확인] “스마트폰 유저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안 좋다는 느낌의 기사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은데, 그런 느낌의 기사가 없는 것 같아요.” → [검색] ‘smartphone users lack of reading’

먼저, 독자 A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식적 점검을 수행하지 않았다. 검색과 검색 결과 확인만을 반복했으며, 다시 검색을 하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인식적 처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구심점 없는 읽기 수행은 읽기의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해 독자의 관점 구성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다. 반면 독자 B는 인식적 조정을 통해 필요한 정보의 내용과 형식을 구체화하고, 인식적 점검에 따라 응집성 있는 읽기를 수행했다.

특히 검색어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독자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독자 A의 검색어는 ‘스마트폰 읽기 능력 → 디지털 읽기 → 스마트폰 → 스마트폰 독서’로 수정의 이유와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독자 B는 검색 결과에 대한 인식적 점검을 통해 ‘스마트폰 유저들의 낮은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에 대한 기사가 없음을 인지하고, 검색어에 ‘lack of reading’을 추가해 검색어를 정교하게 수정한다. 이는 최숙기(2017: 459)에서 검색어 생성과 조정 전략으로 제시한 ‘주제(smartphone users)+초점(lack of reading)’에 부합하는 사례로 보이며, 오은하(2023: 117)에서 능숙한 독자 집단의 학생들이 검색어를 조정하고 정교화한다는 것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선행 연구처럼 이러한 차이가 독자의 인터넷 읽기 능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두 독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인터넷 읽기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지식구성자로 인식하는지, 지식구성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설정하고 조정하고자 하는지에 따른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

3) 자료 선택의 적합성 차이

검색을 통해 나온 자료들을 조망한 뒤 특정 자료를 선택하는 장면에서도 두 독자의 인식적 처리에는 차이가 있었다. 독자 A는 검색해 나온 자료들에 대한 특별한 인식적 판단 없이 자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렇기에 검색 계획과 관련 없는 자료를 선택하는 양상도 보였다. 가령 ‘읽기’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했으나, ‘말하기 능력’에 대한 논문을 선택한 뒤 자료를 읽다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읽기를 멈추는 상황이 나타났다. 자료의 제목에 ‘말하기 능력’이라는 표현이 드러나있었음에도 정보 조망의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적절한 인식적 판단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는 읽기의 방향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독자 B는 정보 조망의 과정에서 자료의 제목, 발행 연도 등을 살펴보는 인식적 판단과 효율적인 읽기 경로를 구성하는 인식적 점검이 빈번히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를 통한 목적성 있는 검색 계획으로부터 추동되었다. 지식구성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

기에 자신의 읽기 과정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독자 B가 자료를 확인하고 검색 계획을 세운 뒤 검색 및 자료 선택을 하는 장면 중 하나다.⁸⁾

■ 독자 B: [내용확인] (자료12를 읽고) “35세 이전까지는 (읽기 능력이) 평균인데 갑자기 낮아진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 [출처확인] → [검색계획] “이거(출처) 찾아봐야겠어.” → [검색] ‘한국인의 역량: 실증분석 개혁과제’ → [검색결과확인] “아까 2016년이었는데? 이걸 2018년이네.” → [자료13 선택] “어 여기 있다 2016년.”

독자 A와 달리, 독자 B는 ‘제목과 주제와의 관련성’, ‘읽은 자료와의 연관성’을 판단해 검색 결과 중 적합한 자료를 선택한다. 인식적 조정을 통해 추가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한 뒤 인식적 점검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검색 계획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집중적인 접근 과정은 읽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관점 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 정보 평가 양상 비교

인터넷상의 정보는 부정확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정보의 내용과 출처, 정보 간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조병영·김종윤, 2015: 389). 개별 자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타당한 판단은 이어지는 자료 탐색의 방향을 결정하며, 독자가 구성하는 관점 및 지식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인식적 처리의 다름으로

8) 독자가 인터넷 읽기 중 선택해 읽은 자료를 시간순에 따라 번호를 붙여 기재했다. 각 자료의 유형과 제목은 후술하는 <표 7>,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해 나타나는 정보 이해 및 평가의 차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1) 자료 이해의 깊이 차이

독자 A와 B의 인터넷 읽기 수행을 분석하면서,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두 독자의 노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보의 부족을 인식하고 추가 탐색을 수행하는 인식적 조정의 차이에서 기인했다.

■ 독자 A: [자료2 선택] → [내용확인] “자기조절읽기. 흠 잘 모르겠네.” → [검색엔진선택] 구글 → [검색] ‘자기조절읽기’ → [검색결과확인] → **[자료2 내용확인] “자기조절읽기, 이게 읽기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건가? 자기조절읽기가 읽기 능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네.”** → [자료2에 대한 추가 탐색을 수행하지 않음]

독자 A는 자료를 읽는 데 있어 추가 정보 탐색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실제로 해당 내용을 직접 찾아보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일례로, 위와 같이 자료 내의 ‘자기조절읽기’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인지하지만 추가적인 탐색 없이 읽기를 멈춘다.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자료 읽기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간다. 이처럼 인식적 조정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기에 해당 자료는 독자의 관점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며, 이어지는 자료 탐색 과정의 방향성 설정도 어렵게 만든다.

이와 달리 독자 B는 높은 수준의 인식적 조정을 통해 자료를 읽고 자신이 모르는 단어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때 바로 해당 정보를 찾아 정확히 확인했다. 이러한 인식적 처리는 단순히 단편적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읽기 과제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성하기 위해 글의 의미를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서 나타났다. 예컨대 PISA의 결과를 활용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읽기 능력을 분석

한 내용을 읽고, 이 조사에서 이야기하는 ‘읽기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신의 견해로 제시할 읽기 능력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Pisa oecd’를 검색해 추가 자료를 찾아보았다. 또한 읽기 능력을 문해력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자 ‘문해력’을 검색해 용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등의 읽기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인식적 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관점 구성의 타당성을 높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자료 평가의 수준 차이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인식론적 신념을 바탕으로 비판의 구체상을 마련한다(이소라, 2017: 2). 따라서 정교한 인식론적 신념을 지닌 독자는 지식의 맥락성과 복잡성에 대해 인식하고, 자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독자 A와 B의 자료 평가 양상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 독자 A: [자료3 선택] → [저자확인] “누가 쓴 거야 이거?” → [추가 정보 탐색 안 함]

우선 독자 A는 정보 평가에 있어 추가 자료 탐색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자료 이해에서와 동일하게 낮은 수준의 인식적 조정으로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 위의 사례 이외에도 글의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높은 수준의 인식적 판단 없이 ‘주제와의 관련성’만을 그 준거로 사용하고, 글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도 글을 쓴 저자만을 확인했다.

■ 독자 B: [자료6 선택] → [내용확인] “근데 여기서는 이해랑 조직하는 능력이랑 인지랑 메타인지가 지금 다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했는데…” → [저자평가] “누가 쓴 건지 보고 있었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분이 어떤 전문가인지를 모르니까 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봤어.” → [근거평가]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앞에 자기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이와 달리 독자 B는 높은 수준의 인식적 판단을 수행해 저자, 게시자, 자료 내 발화자, 게시 일자, 사이트를 확인하고 평가했으며, 근거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선행 경험, 이전에 읽은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비판적 분석을 수행했다. 개별 정보에 대한 검증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신의 관점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양상의 차이는 두 독자가 우연히 같은 글을 읽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독자 A: [자료4 선택] → [내용확인] → [내용확인] → [내용확인]

■ 독자 B: [자료11 선택] → [게시일자확인] → [내용확인] → [근거평가] → [근거평가] → [관점조정]

독자 A는 “스마트폰 중독 아이는 ‘팝콘 브레인’ 독해력 떨어진다”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선택하고 글을 읽는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정보 평가에 기여하는 인식적 처리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독자 B는 같은 글을 선택하고 읽으면서 다수의 인식적 판단과 점검을 수행한다. 게시 일자와 출처를 확인해 자료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자신의 선행 경험과 글의 내용을 연결해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인식적 처리는 자연스럽게 독자의 관점 구성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적극적인 인식적 처리 없이 자료를 수용하는 독자는 그 내용을 해석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이 적고, 그로 인해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반면 적극적인 인식적 처리를 수

행하는 독자는 면밀한 자료 평가를 수행하고, 그러한 읽기 수행의 축적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자료를 연결하고 비교하며 타당한 관점을 구성해 나간다. 결과적으로 인식적 처리에 의해 생기는 정보 평가의 수준 차이는 지식 구성 과정의 응집성을 결정하게 된다.

3. 정보 종합 양상 비교

인터넷 읽기에서 정보를 종합한다는 것은 읽은 자료들을 연결하고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이나 관점을 구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타당하고 적합한 지식 또는 관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근거를 수집하고 자료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읽기 중 읽기 과제에 대한 끊임없는 메타인지적 점검도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읽기 과정이 인식적 처리와 어떻게 관련되며 결과적으로 정보 종합의 양상을 어떻게 달리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 독자 A: [관점확인] (자료3까지 읽기를 진행한 뒤) “지금까지는 원래 했던 생각을 더 채우는 느낌이에요.”

독자 A는 읽기 중 관점을 구성하는 발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자신의 관점을 확인하는 발화만 일부 드러날 뿐, 자신의 관점과 같거나 다른 자료를 읽고 나서도 관점을 강화하거나 조정 또는 변화하는 양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독자 A가 스스로를 지식구성자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편 독자 B와 비교했을 때, 독자 A가 적극적인 관점 구성의 양상을 보이지 않은 것은 정보 종합에 앞서 수행되는 정보 탐색과 평가의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독자 B: [사이트평가] → [관련성평가] → [내용확인] → [관점조정]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읽기 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이야기 해도 되나? (중략)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대상은) 2010년 이후 태어난 애들이니까. 이용 시간과 읽기 능력은 어릴수록 상관관계가 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 [관점조정] “왜냐면 그냥 무심코 생각한 게 우리 동기들이나 부모님 세대를 봐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읽기 능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안 사용하다가 사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린 애들은 제대로 된 독해를 하기 전에 스마트폰부터 접하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면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어릴 때 이미 읽을 거 배우고 중·고등학교 돼서야 스마트폰을 접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나이에 이상은 그렇게까지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었어.”

독자 B는 높은 수준의 인식적 판단과 점검을 통해 읽은 자료들과 자신의 개인 경험을 연결해 ‘연령대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읽기 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정보 종합의 과정은 위의 읽기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보 탐색 및 평가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개별 자료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맥락적인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 B는 해당 관점을 구성한 직후에도 다시 관련 자료들을 탐색했으며 추가적으로 3개의 자료를 더 확인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갔다. 이는 독자가 지식을 복잡하고 맥락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적극적인 의미구성자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읽기를 모두 마친 후 작성한 활동지(주제에 대한 관점과 근거)를 통해서도 두 독자의 정보 종합 양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각 독자가 인터넷 읽기를 하면서 읽은 모든 자료와 그중 관점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 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독자 A가 읽은 자료 목록

	자료 정보		활용 여부
	유형	제목	
1	신문기사	스마트폰 중독된 아이들, 언어능력 저하된다?	O
2	학술논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가 독서 실태 및 자기조절읽기에 미치는 영향	X
3	브런치글	스마트폰은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O
4	신문기사	스마트폰 중독 아이는 '팝콘 브레인' 독해력 떨어진다	X
5	신문기사	스마트폰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책 꼭 읽어야 돼요?	O
6	브런치글	(IT트렌드바로읽기) 디지털 중독-모비인사이드	X
7	보고서	2018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X
8	학술논문	성인의 국어 말하기 능력 실태 조사 결과 분석 -2018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X
9	학술논문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결과 분석	X
10	학술논문	2018 국민의 읽기 능력 조사 결과 분석	X

〈표 8〉 독자 B가 읽은 자료 목록

	자료 정보		활용 여부
	유형	제목	
1	신문기사	스마트폰, TV 많이 본 아이, 언어 능력 떨어져... 뇌 구조 변화 탓	O
2	신문기사	피싱 메일 몰라? ... 한국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OECD 바닥 '충격'	O
3	국어사전	문해력 정의	O
4	신문기사	금일 시험=금요일 시험? 읽고 쓸 줄 알아도 이해 못하는 한국인	X
5	칼럼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신문맹	O
6	학술논문	An inquiry into the effects of smartphone use on reading comprehension	X

7	신문기사	Smartphone use can hinder children's reading skills	O
8	신문기사	SNS 단문, 영상에 빠진 중고생, 국어 학력 '뚝뚝'	O
9	칼럼	(교육칼럼) 뚝뚝 떨어지는 문해력, 문맹될까 두렵다	O
10	신문기사	국포자 안되려면... 초등 저학년부터 어휘, 독해력 길러야	O
11	신문기사	스마트폰 중독 아이는 '팝콘 브레인' 독해력 떨어진다	O
12	신문기사	'스피드 퀴즈'된 국어 시험에... 뚝뚝 떨어지는 독해력	O
13	블로그글	한국인의 역량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 개혁 과제	O

두 독자가 읽은 자료의 수와 유형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해당 자료를 자신의 관점 구성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큰 차이가 났다. 독자 A는 독자 B와 비슷한 수의 글을 읽었음에도 10개의 자료 중 3개의 자료만을 활용했고, 각 자료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읽기 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작성했다.

이와 달리, 독자 B는 13개의 자료 중 11개의 자료를 활용해 관점을 구성했으며, '스마트폰 사용과 읽기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입체적인 관점을 구성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과 읽기 능력 간의 상관관이 있다'라는 기존의 관점이 읽기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는 인터넷 읽기 과제에서 정교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특정 출처나 관점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정보와 통찰력이 담긴 읽기 결과를 도출한다(Woodward & Cho, 2020: 6)는 선행 논의와도 연결되는 지점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두 독자의 읽기 결과의 차이(관점 구성의 차이)는 읽기 중 수행한 인식적 처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기술한 읽기 장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읽기 과정에서 인식적 판단, 점검, 조정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정보 탐색, 평가, 종합의 국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읽기 전반에서 독자가 활용한 인식적 처리가 정보 탐색, 평가, 종합의

깊이를 좌우하고, 결과적으로 두 독자의 읽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인터넷 읽기를 수행하는 독자는 누군가 생성한 텍스트를 충실히 읽는 것을 넘어, 읽은 텍스트를 평가하고 종합해 응집적인 의미구성체를 직조해 내어야 한다. 이때 핵심 기제로 작동하는 독자 변인 중 하나가 인식론적 신념이며, 이는 인식적 처리의 읽기 수행으로 나타난다. 인식적 처리란, 지식구성 과정에서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이 반영되는 양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읽기 행위이다. 이 연구는 실제 인터넷 읽기에서 두 명의 독자의 인식적 처리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탐색, 평가, 종합의 양상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이 실제 인터넷 읽기에서 어떤 양상으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했다.

먼저, 정보 탐색에서는 활발한 인식적 처리를 수행한 독자가 더욱 목적 있는 검색 계획을 수립하고, 검색과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유기적이었으며, 뚜렷한 검색 계획과 검색 과정을 기반으로 적합한 자료를 선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 탐색의 과정은 읽은 자료에 대한 인식적 판단과 점검을 통해 자료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인식적 조정을 통해 다음 자료 탐색을 계획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정보 평가에서는 적극적인 인식적 처리를 수행한 독자가 자료의 다양한 요소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적합하게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보 평가에서는 인식적 조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자료 이해의 깊이와 평가 수준의 차이가 극명히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 종합에서는 앞선 정보 탐색 및 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졌을 때 유의미한 관점 구성 또는 조정의 양상이 나타났다. 즉, 개별 자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선행될 때 타당한 관점을 구성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두 명의 독자가 읽은 자료와 관점 구성 시 활용한 자료를 비교해 볼 때, 더 활발한 인식적 처리를 수행한 독자가 충분한 정보 탐색과 평가를 토대로 관점 구성에 있어 더 많은 자료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이 연구는 독자의 사고기술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극소수의 독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사고기술 방법론은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고 과정만을 드러낼 수 있기에 언어화하지 못한 인식적 처리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인터넷 읽기 중 연구자가 과제 수행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추가 질문을 통해 보완하고자 했으나, 독자의 모든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정보 탐색, 평가, 종합의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읽기 수행을 모두 포괄해 논의하지 못했다. 더 많은 독자의 읽기 과정을 관찰한다면 여러 유형과 출처의 자료(예: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위키백과, SNS 게시물, AI 생성 텍스트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평가 양상(예: 정보의 편향성 분석,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 등)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준의 인식적 처리를 구체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검색 결과를 보고 자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 높은 수준의 인식적 처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정보 선택 및 배제는 독자의 주도적 읽기가 전제되어야 하며, 수준 격차가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오은하, 2023: 132)는 논의와도 연결된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읽기 능력을 갖춘 국어교육 전공 대학생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보 탐색에서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과업이라는 점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인터넷 읽기 환경에서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이 작동하는 양상을 인식적 처리의 개념을 활용해 설명해 보고자 한 시도로, 인식적 처리의 차이와 그로 인한 정보 탐색, 평가, 종합의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인식론적 신념과 읽기 간의 관계를 밝히거나 인식적 처리를 개념적으로 논의하고 관찰한 연구가 드물기에, 특정 읽기 환경에서 특히 관여하는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이 무엇인지, 인식적 처리의 판단, 점검, 조정의 유형과 그 수준이 어떻게 더 구체화될 수 있는지, 읽기에서 독자의 인식론적 신념의 작동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관찰 기법들이 논의되고 정교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와 토론은 더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가 마주하는 읽기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특히 ChatGPT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식구성의 과정을 다른 객체가 대신하기도 하는 지금, 학습자들에게 의미구성 주체의 역할과 맥락적이고 복합적인 지식의 본질을 일깨워 주는 것은 오늘날의 독서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렇기에 지식의 본질과 앎의 과정에 대한 독자의 인식과 태도를 의미하는 인식론적 신념과 그로 인해 수행되는 인식적 처리는 오늘날 독서 연구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중 인식적 처리는 독자의 신념이 근간이 되어 작동하는 읽기 행위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교육은 독자를 중심에 둔 독서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간의 독서교육에서는 독자와 읽기 전략을 구분해 교육해 왔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독자의 정교한 인식론적 신념이 수준 높은 인식적 처리의 기반으로 작용해 독자의 읽기 과정과 결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어교육의 구도에서 독자의 인식적 처리를 ‘과정·기능’으로, 인식론적 신념을 ‘가치·태도’로 본다면, 기능과 태도는 서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 즉, 높은 수준의 인식적 처리는 교육되어야 할 과정이자 기능이며, 정교한 인식론적 신념은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이자 태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능의

학습은 태도의 성장으로, 태도의 성장은 다시 기능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이상적인 구도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어교육 분야에서 독자의 인식론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이를 구체적인 교육의 국면에서 논의하고 실현해 본다면, 독자를 중심에 둔 독서교육, 나아가 학습자를 중심에 둔 국어교육의 실천이 가능해질 수 있으리라 본다.

* 본 논문은 2024.7.31. 투고되었으며, 2024.8.9. 심사가 시작되어 2024.9.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양미경(2006), 「학습자의 인식론적 신념: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열린교육연구』 14(3), 1-25.
- 오은하(2023), 「디지털 텍스트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등학교 독자들의 읽기 행동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58(1), 101-140.
- 윤초희(2012), 「학습자의 인식론적 신념 - 이론적 쟁점과 교육적 의미 탐색 -」, 『교육심리연구』 26(1), 327-351.
- 이소라(2017ㄱ), 「인식론적 신념이 독자 신념과 다문서 읽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독서연구』 43, 183-212.
- 이소라(2017ㄴ), 「다중관점 읽기의 발달 양상과 교육 내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소라(2018), 「인식론적 신념, 읽기 전략에 대한 상위인지 및 다중관점 읽기의 구조적 관계 분석」, 『새국어교육』 116, 31-60.
- 장성민(2022ㄱ),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문서 선택, 사용의 영향 요인 분석 - 어떤 사람이 가짜 뉴스, 거짓 정보에 넘어가는가?」, 『국어교육학연구』 57(2), 245-294.
- 장성민(2022ㄴ), 「디지털 다문서 환경에서의 읽기·쓰기: 개인차 요인, 다문서 선택과 사용, 쓰기 결과물 사이의 영향 관계」, 『독서연구』 65, 41-80.
- 조병영·김종윤(2015), 「인터넷 환경에서의 읽기 부정확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어교육』 148, 367-397.
- 최속기(2017), 「청소년 온라인 독자의 LESC 독해 처리 과정 모형에 기반한 읽기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8), 437-471.
- 편지윤·서혁(2020),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의 인지적 평가 요소 개발 연구」, 『독서연구』 54, 203-244.
- Afflerbach, P. (2022), *Teaching readers (not reading): Moving beyond skills and strategies to reader-focused instruction*, NY: Guilford Publications.
- Barzilai, S. & Zoher, A. (2012), "Epistemic thinking in action: Evaluating and integrating online sources", *Cognition and Interaction* 30, 39-85.
- Bråten, I., Strømsø, H. I., & Ferguson, L. E. (2016), The role of epistemic beliefs in the comprehension of multiple expository texts: Toward an integrated model In P. Afflerbach (Ed.), *Handbook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ding: Reader, text, and context*, London: Routledge.
- Bråten, I., Strømsø, H. I., & Samuelstuen, M. S.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specific epistemological beliefs and learning within internet technologies",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33(2), 141-171.
- Chiu, Y. L., Liang, J. C., & Tsai, C. C. (2013), "Internet-specific epistemic beliefs and self regulated learning in online academic information searching", *Metacognition and Learning* 8(3), 235-260.

- Cho, B. -Y. & Afflerbach, P. (2015), "Reading on the Internet: Realizing and constructing potential texts",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8(6), 504-517.
- Cho, B. -Y., Woodward, L., & Li, D. (2017), "Epistemic processing when adolescents read online: A verbal protocol analysis of more and less successful online readers", *Reading Research Quarterly* 53(2), 197-221.
- Ferguson, L. E., Bråten, I., & Strømsø, H. I. (2012), "Epistemic cognition when students read multiple documents containing conflicting scientific evidence: A think-aloud study", *Learning and Instruction* 22(2), 103-120.
- Hartley, K. & Bendixen, L. D. (2001), "Educational research in the internet age: Examining the rol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Educational Researcher* 30(9), 22-26.
- Hofer, B. K. (2004), "Epistemological understanding as a metacognitive process: Thinking aloud during online searching", *Educational Psychologist* 39(1), 43-55.
- Hofer, B. K. & Pintrich, P. R. (1997), "The development of epistemological theories: Beliefs about knowledge and knowing and their relation to learning",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7(1), 88-140.
- Jacobson, M. J. & Spiro, R. J. (1995), "Hypertext learning environments, cognitive flexibility, and the transfer of complex knowledge: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12(4), 301-333.
- Kendeou, P., Muis, K. R., & Fulton, S. (2011), "Reader and text factors in reading comprehension processes",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34(4), 365-383.
- Leu, D., Forzani, E., Burlingame, C., Kulikowich, J., Sedransk, N., Coiro, J., & Kennedy, C. (2013), "The new literacies of online research and comprehension: Assessing and preparing students for the 21st century with 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 S. B. Neuman & L. B. Gambrell(Eds.), *Quality reading instruction in the age of Common Core Standards*,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Leu, D., Kinzer, C., Coiro, J., Castek, J., & Henry, L. (2013), "New literacies: A dual-level theory of the changing nature of literacy, instruction, and assessment" In D. E. Alvermann, N. J. Unrau, M. Sailors, & R. B. Ruddell(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London: Routledge.
- Mason, L., Boldrin, A., & Ariasi, N. (2010a), "Epistemic metacognition in context: Evaluating and learning online information", *Metacognition and Learning* 5(1), 67-90.
- Mason, L., Boldrin, A., & Ariasi, N. (2010b), "Searching the Web to learn about a controversial topic: Are students epistemically active?", *Instructional Science* 38(6), 607-633.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CA: Jossey-Bass.
- Schommer, M. (1990), "Effects of beliefs about the nature of knowledge on comprehension

- s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498-504.
- Tu, Y. W., Shih, M., & Tsai, C. C. (2008), "Eighth graders' web searching strategies and outcomes: The role of task types, web experiences and epistemological beliefs", *Computers & Education* 51(3), 1142-1153.
- Woodward, L. & Cho, B. -Y. (2020), "How students' beliefs about knowledge matter in multiple-source reading online: Implications for classroom instruction",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64(4), 1-10.
- Yilmaz, F. G. K. & Çakmak, E. K. (2016), "Internet-specific epistemological beliefs and online information searching strategies of pre-service teachers: Gender and department differences", *Participatory Educational Research* 3(2), 63-80.

인터넷 독자의 인식적 처리에 관한 사례 기반 고찰

— 두 대학생 독자의 정보 탐색, 평가, 종합 양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채윤·조병영

독자는 인터넷에서 타당한 지식이나 관점을 구성하기 위해 개별 정보를 검증하고 자신의 의미구성 과정을 점검한다. 이때 독자가 지니고 있는 지식과 앞에 대한 태도이자 관점을 뜻하는 인식론적 신념은 독자의 판단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인식론적 신념이 인터넷 읽기에서 작동하는 양상을 인식적 처리의 개념을 활용해 확인하고자 했다. 인식적 처리란 정보를 검증하고 평가하거나 지식구성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때 수행되는 인지적, 메타인지적 읽기 행위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식론적 신념의 수준이 다르고 관점 구성의 결과에 차이가 있던 두 대학생 독자를 중심으로 인터넷 읽기에서의 인식적 처리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개별 독자의 인식적 판단, 점검, 조정에 따라 정보 탐색, 평가, 종합의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기술함으로써 인식론적 신념의 작동 양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핵심어 인식론적 신념, 인식적 처리, 인식적 판단, 인식적 점검, 인식적 조정, 인터넷 읽기, 온라인 읽기, 정보 탐색, 정보 평가, 정보 종합

A Case - Based Study on Epistemic Processing of Internet Readers

—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wo University Students' Locating, Evaluating, and Synthesizing Information

Lee Chaeyun · Cho Byeong-Young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epistemic beliefs function in Internet reading, utilizing the concept of epistemic processing. Epistemic processing refers to the cognitive and metacognitive reading activities involved in verifying and evaluating information, as well as monitoring and regulating the knowledge-construction process. The study analyzed the epistemic processing in Internet reading of two readers with different levels of epistemic beliefs, who showed varying outcomes in constructing perspectives. By comparing and describing how the processes of locating, evaluating, and synthesizing information differed depending on each reader's epistemic judgments, monitoring, and regulation, the study indirectly confirmed the role of epistemic beliefs in Internet reading.

KEYWORDS Epistemic Beliefs, Epistemic Processing, Epistemic Judgment, Epistemic Monitoring, Epistemic Regulation, Internet Reading, Online Reading, Locating Information, Evaluating Information, Synthesizing Information